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9
Sep. 2014
Vol.2 No.7

- '주안에라이프' 개교
- 성가대 수련회
- 어와나·한국학교 오픈
- 칼럼 / 화보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빅베어 파인크레스트 산장에서 실시된 제 1기 주안에 힐링캠프를 마친 Seekers들과 Supporters들이 활짝 웃고 있다. <사진: 노호림 전도사, 관계기사 2·4·5면>

힐링캠프

주안예교회가 실시한 제 1기 주안에 힐링캠프가 지난 8월 24-27일까지 3박 4일간 빅베어 파인 크레스트 산장에서 100명의 Seekers와 103명의 Supporters가 참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모두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마치게 되었다.

지난 힐링캠프는 우리 주안예교회가 실시한 첫 힐링캠프라는 의미에서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충분한 기도와 경험이 미흡한 상태에서 실시되었음에도 짧은 기간 팀장을 맡은 교역자들과 각 팀의 구성원들이 기도하고 협력하며 일사분란하게 준비하였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제 1기 주안에 힐링캠프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주안예교회가 실시하는 힐링캠프의 특징은 말씀의 본질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캠프의 기본에 맞게 계획되고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진행 과정에 하나님께서 Seekers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Supporter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TD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순종과 협력의 마음으로 섬기하고자 했기에 조용하게 힐링캠프의 진행

말씀 안에 만난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



을 도우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 주안에 힐링캠프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 알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 이유는 힐링캠프를 다녀오신 Seekers의 간증과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2기 주안에 힐링캠프가 11월 9일부터 3박

4일간 계획되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다음 힐링캠프에도 Seekers와 Supporters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 김영일 기자 |

AWANA

지난 9월 11일(목요일)과 12일(금요일) 두 곳 채플에서 각각 AWANA가 시작되었다.

AWANA는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즉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의 표현을 따서 만든 이름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경에 기초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훈련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그 역사가 60년이 넘는다.

아이들은 즐거운 게임 시간에 Team work를 통해서 협동심, 배려심, 질서를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고 각자의 성품을 개발하게 되므로 리더로 헌신하는 고등부 학생을 포함한 선생님에게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될 것이다.

수줍은 아이들은 담대하게 되도록 훈련하며 아이들 모두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군인다운 모습이 갖춰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긍심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7시 30분 시작과 함께 성경암송시간과 게임 시간 경배와 찬양, 말씀까지 두시간에 걸쳐

2세들을 복음으로 훈련시켜 주의 용사로



진행하는 어와나의 다소 엄격한 군대식 규율은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사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9월 12일(금요일) 벨리 채플은 40명의 학생과 9명의 리더가 참여했으며 9월 11일(목요일) 시작한 세리토스 채플은 30명의 학생과 6명의 리더로 시작했다. 모든 면에서 사

람을 점점 나약하게 만드는 사회환경도 그렇고 이전보다 약해졌고 앞으로도 선함보다 악함이 판을 칠 세월을 스스로 헤쳐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기를 소원하며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하는 바이다.

| 채은영 기자 |

주안에 라이프

주안에 라이프(IC LIFE)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다.

주안에 라이프를 노인대학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나 이는 장년들을 위한 문화교실에 가깝다.

매주 수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두 종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아침 티타임으로 시작 점심식사까지 포함하여 진행된다.

한국의 문화센터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교회에서 진행하게 된다.

힘들고 쉬 지치게 되는 매마른 이민생활의 활력소를 주안에서 찾기를 바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재능과 섬김의 달란트를 여러 성도들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나누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이를 가능케 했다.



수업내용으로는 골프클리닉, 건강댄스, 건강스트레칭, 기타교실, 노래교실,

미술, 배드민턴, 스마트폰, 수화, 아이패드, 영어교실, 컴퓨터, 키보드 등이 가능하며 두가지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또한 교통편이 여의치 않는 성도들을 위한 교통편도 제공할 계획이다. 등록 인원 70여명, 15명의 강사들과 9명의 진

새로운 배움과 활기찬 삶을 충전해요



행요원으로 시작하며 얼마 간의 추가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과 보람을 찾을 행복한 주안에 라이프가 되길 기대한다.

| 채은영 기자 |

행요원으로 시작하며 얼마 간의 추가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과 보람을 찾을 행복한 주안에 라이프가 되길 기대한다.

| 채은영 기자 |

성가곡

백리채플 성가곡 수련회가 8월 31일부터 1박 2일 옥스나드에서 열렸다. 임마누엘 살롬, 사랑 3개 성가대원 1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는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많은 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주안에교회 성가대원으로서 사명을 다지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31일 주일예배 후 교회를 출발, 한시간 거리에 있는 옥스나드 비치 인근에 위치한 조용한 리조트 매리웃 레지던스인에 도착했다. 교회 안에서만 서로 지나치다가 새로운 분위기에서 약간의 들뜬 마음과 기대감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 방배정을 받았다.

도착예배를 드리고 뷔페로 즐겁게 저녁식사를 마친 후 컨퍼런스홀에 박정환 목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라는 강의가 있었다. 이어서 박 목사와



안덕문 집사의 사회로 오락시간을 가졌는데 특별로 진행된 게임을 통해, 그동안 서먹했던 대원들이 마음을 열고 금방 친해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팀의

3개 성가대 수련회, 말씀과 친교의 장



승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투지와 기발한 아이디어, 열띤 응원으로 웃음 꽃을 피웠다.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록한 카드를 나누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식사 후 최혁 담임목사의 강의를 찬양의 본질과 의미를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유대에 거쳐 그 근원을 찾아 가며 예배자로서의 사명과 자세에 대해 소중한 교훈과 깨달음을 주었다. 예배 기운

데 찬양은 하늘 길을 여는 것임을 배우며 성가대원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강의를 세리토스 채플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는 이미경 집사를 통해 성가대원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악보 보는 법과 발성 연습이 있었다.

오전 강의 후 인근에 위치한 아름다운 스테이트비치로 자리를 옮겨, 바비큐파티를 즐기며 자유시간을 가졌다. | 조용대 기자 |

Joyful &

■ 제 1기 주안에 힐링캠프



장지영 집사



김철환 집사



권상복 집사



조현정 성도



남조이스 권사



김연희 집사



이경은 성도



김은옥 권사



김태훈 집사



이에스더 권사

■ Seekers 간증

“이제 너는 아무데도 못 간 데이~”

저는 27년간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찻집 방에 갔다가 한 아줌마를 만났는데 그 우연한 만남은 제 인생을 백팔십도 변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저는 하행 길에 들어선 남편의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찻집 방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그때의 고난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셨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성격이 화끈한 나와 불임성 좋은 그녀와는 금세 친구가 되었는데 그녀는 만날 때 마다 불교 신자인 나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며 은근슬쩍 압박을 넣었습니다. 저는 불쾌하여 6년간 지속됐던 그녀와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아침마다 우리 집 거실에 모셔 둔 불상 앞에 그녀의 이름을 붙여 놓고 열심히 복을 빌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역시 나를 위해 자기가 믿는 하나님한테 뭔가를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은 눈치로 알고 있었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러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믿으라. 라합’이라는 죄목사님의 말씀이 담긴 시디와 함께 몇 개의 말씀 시디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며 시디를 틀었는데 말씀을 들던 저는 그대로 갓 길에 자동차

를 멈추게 하고는 두 시간이 넘도록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모든 말씀이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회개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 미국교회를 출석하면서 생소한 분위기에 익숙해지지 않았고 마음 한구석 전에 믿었던 신으로부터 별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늘 불안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친구의 권유로 제 1기 주안에 힐링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고 3박 4일 동안 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만사를 통해 주님은 저를 확실하고 뜨겁게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은자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더 이상 아무데도 못 간 데이.”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파고 들어 3박 4일 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는 한 자매가 이전 그만 울라고 하면 할수록 울음이 더 복받쳤습니다. 헛된 우상에게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온 지난 날의 어려움과 후회,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줄줄 흘러 내립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인지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겨우 2년이 좀 넘어 기도도 서툴고 찬송도 잘 모르지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

니다. 그 오랜 세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며 의지했던 허무하기 짝이 없던 신, 그 짝퉁 신은 내게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만지셔서 나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분노 발작의 지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으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주어진 모든 사건과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 춤을 추며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드린 기도에는 저는 또 울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제 사랑하는 부인이 힐링 캠프에 다녀온 후 천사로 변했습니다. 짜증도 내지 않고 말씨도 굵고 밝은 얼굴로 부족한 나를 더욱 사랑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정말 당신은 살아 계시는군요.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디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늦은 만큼 저는 목숨을 다하여 헛된 신을 좇고 있는 불쌍한 친구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윤은자 성도

Beautiful

■ 제 1기 주안에 힐링캠프



김경배 집사



이춘희 집사



김진경 집사



양승안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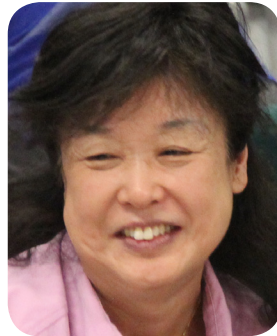
제니퍼 오 성도



한원식 성도



김혜림 성도



김동숙 집사



정지원 집사



김애경 집사

■ Seekers 간증

하나님의 임재, 내 인생의 새 출발점

오늘은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힐링캠프 가는 날 내 기분은 형용할수 없는 감격에 기쁨,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리며 영광을 돌려 드렸다. (할렐루야)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빅베어에 도착해 내리는 순간부터 감격의 순간이 시작 됐다. 태어나서 이렇게 기쁨에 감격을 받아 본적이 나에게 는 없었다. (꿈만 같다)

첫날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느끼고 보고 경험했다. 이땅에서 천국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너무 환상적인 기쁨이 내 가슴에 가득히 채워졌다. 목사님 설교 안에, 찬양 안에, 봉사 안에, 식사 안에,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하게 일하고 역사하심을 나는 보았고 체험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목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나를 불러 주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영원히 천국갈 때까지 내가 인도할 받기를 원하셨다. (나는 아멘하고 열심히 말씀을 경청했다)

나는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가는줄도 모르고 마냥 하나님 사랑을 배불리 먹고 웃입고 마음껏 누리면서 깨달았다. 주님의 사랑은 상대를 편안하게 섬겨드리는 것이라는 걸 느끼면서 남편

과 딸 보람이도 이곳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11월 달에는 꼭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

그리고 내가 같이 가자고 이야기 했던 분들이 생각이 난다. 다음에는 꼭 같이 오리라 기도하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8-26-2014 (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내 생일이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날을 내 마음에 새기며 목사님 그리고 supporter님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 사랑 내 마음에 영원히 기억하며 나도 지극히 작은 것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박아버린 날이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드린 날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육 간에 강건함을 입은 날이다. 또 내가 완전히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과 한몸이 되어 더불어 호흡하며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한 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기뻐 뛰면서 찬양과 감사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또 내가 왜 암에 걸리게 되었는지도 말씀 듣는 중에 알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모양으로 알려 주셨는데도 안듣고 내

고집대로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으로 하면서 발버둥치고 있으니 보시다못해 나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수술을 받게해서 나의 세상의 속한 무거운 짐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 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는 생각, 말, 마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면서도 순간 순간을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마귀에 종노릇 하고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 (최학 목사님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축랑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나의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

암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암 수술을 받기 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성령님께서는 의사들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시고 경험을 모아 그 어떤 수술보다 성공적으로 끝나게 인도해 주셨다.

수술받고 방사선 받든지 한달 좀 지나를 때 이곳에 왔는데 내가 진짜 수술을 받았나 하고 의심이 들 정도로 건강함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사라 집사

《면서 계속》

■ 선교지로 떠나면서...

필리핀의 아이들을 다시 품게하신 하나님

김길현 목사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올 때의 계획은 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학교사역을 하면서 기독교 아동과 청소년 상담 사역을 계획을 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 했었던 기독교 상담학 공부를 하계하신 후 하나님의 연장된 손길들을 통해 풀러 선교대학원에 다시 진학하게 하시며 계획에 없었던 선교학 공부를 시작하게 하셨다.

풀러 선교대학원에 진학하여 벤엠크 교수의 "선교학"과 찰스 크레프트 교수의 "내적 치유" 그리고 클린턴 교수의 "리더십" 강의를 듣게 하시면서 20여년 전 사역했던 필리핀의 버림받고 상처받고 헐벗은 아이들을 다시 가슴에 품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마다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

본인은 선교를 준비하면서 파송 받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예배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교육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하는 교회, 사랑과 헌신으로 사회 봉사(구제)로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연케하는 교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왔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찾아왔던 파송교회를 만나게 하는 은혜와 복을 부족한 본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본인은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본인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보람 있게 섬겨 왔다. 앞으로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에 주님께 쓰임 받는 작은 도구가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맡겨진 모든 사역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성실하고 충실히 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소명자가 되고 싶다.

또한 부족한 본인을 선교의 사명을 갖고 파송해준 주안예교회와 최혁 목사님, 그리



고 당회원들과 주안예교회 온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주안예교회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더욱 하나님 앞에 성실한 선교사가 될 것을 다짐한다.

이제 10월 1일이면 필리핀 선교지로 다시 가게된다.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지는 마닐라에서 동,북쪽으로 1시간 30분 거리인 Taytay Rizal 시의 Pinsvil Dolores 마을과 Don Enrique 마을이다. 이 두 마을은 교회와 학교가 없는 판자촌으로 이루어진 산동네 빈민촌이며,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2013년 3월에 MK 출신인 정선교 선교사와 함께 Pinsvil Dolores 마을에 현지인 교회를 세우고 유치원을 개원하여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받아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2일 Don Enrique 마을에 필리핀 현지인교회와 고아원, 학교, 미혼모와 싱글맘 쉼터, 그리고 상담센터와 MK 선교사 훈련센터를 세우는 기공식을 하게된다.

본인은 필리핀 사역지를 갈때마다 내가 어렸을때 자랐던 고향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운 사람들과 보고싶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곳... 이 선교지의 환경과 아이들의 모습은 본인이 어렸을때 자랐던 환경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그 환경에 있을때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맛 보며 본인의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

끝으로 작은 바람과 소망이 있다면 본인이 이세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연장된 손들을 버림받고 상처받고 헐벗은 아이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이곳에 잠들다"라는 작은 비문의 글이 남겨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보다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사역에 임할 것을 선교사 파송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 해 본다.

■ 사역소개:

연약한 채 도외시된 어린이들을 향한 소명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특히 이 땅의 고아들, 싱글맘/싱글대디로 불리우는 결손가족의 자녀들, 저소득층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섬기기 위해 크게 다음과 같은 사역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게 된다. 현지인 교회 개척, 고아원 설립, 학교설립, 미혼모, 싱글맘 쉼터 설립, 상담센터 설립, MK 선교사 훈련센터 설립이 그것들이다.

■ 기도제목:

1. 현재 운영 중인 Pinsvil Dolores 마을 학교 모든 학생들이 1:1 하나님의 연장된 후원의 손길들을 만날 수 있도록...
2. 10월22일 Don Enrique 마을 건축 기공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 되도록...
3. 앞으로 진행될 Don Enrique 마을에 현지인 교회 개척, 고아원 설립, 학교 설립, 미혼모, 싱글맘 쉼터 설립, 상담센터 설립, MK 선교사 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4. 함께 사역하는 MK 출신 정선교 선교사가 빠른 시간안에 파송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5. G2FM과 함께 사역하는 MK 출신 선교사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할 수 있도록...
6.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5면서 계속)

나의 육신은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혁 목사님을 통해 회복시키기 위해 힐링캠프로 불러 주셨다. 나는 일년 동안 흘릴 눈물을 이 날 다 흘렸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게 된 것이 다 목사님들과 supporter님들과 예수님 말씀 안에

서 한마음 한 방향으로 시선을 보고 사랑해 주신 덕분이다. 이 은혜를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린다. 오늘은 너무나 아쉬운 마지막 날이었다. 정말로 내려가기 싫다. 나는 더 있고 싶었다. 정말 너무 아쉽다.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했다. 형제, 자

매님들의 얼굴들이 반짝반짝 성령의 은혜로 빛이 났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오래오래 지속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 드렸다. 그리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잘 섬겨주시는 목사님들과, supporter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쁘게 접어 칭찬 받을거야



놀이하듯... 재미있는 성경공부



가슴 적신 간증, 감동 물결



미술반, 마음은 여학교 시절로



웃음이 힐링이다!



기쁨 가득, 찬양이 달라졌어요

■ 교육부



주안에 평생교육

주안에교회에서는 장년으로부터 유치부(ICKIDZ)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이 펼쳐지는 교육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 하나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다. 크리스찬으로써의 정체성부터 시작하여 민족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인생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시작부터 마무리해가는 마지막 여정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안에 우리가 되어갈 기초를 우리의 열심하나 하나님을 모아가고 있다.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참여로 가능한 일이기도 한 이 평생교육의 현장에 좀더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라고 또 바란다.

우리는 가끔 아이들에게 영똥한 것을 물려주기 위해 소중한 것을 잊을 때가 참 많다. 그것은 물질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좋은 학벌이 아닐 때가 있다. 가정이 화목하다고 무조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닌기 싶기도 하다. 엄마 아빠들은 종종 아이들 때문에 싸운다. 아이를 아끼는 마음의 모양이 달라 같은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며 영똥하게 나를 포함한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잘 지워지지 않는 상처기를 만든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다. 좋은 학벌을 위해 아이들을 내모는 짓도 한박자 늦춰야 하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것만 같은 세상의 흐름도 무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화목한 가정의 관점도 우린 세상의 잣대와 좀 다르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미래 위에 성을 쌓은 듯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어쩔 우린 이 불안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멋진 장난감과 비싼 옷이나 가방보다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전신갑주로 무장된 강인한 정신이 더욱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은 열심이 만들고 있는 듯 하다. 이제 우리 각자가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내부적인 환경을 완성했으면 한다.

| 채은영 기자 |

EIKON

두번째 학기를 시작한 EIKON은 9월 13일(토요일) 부터 시작하여 크리스마스 직전 12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학기에도 지난 학기와 비슷한 60여명의 학생들과 12명의 리더들이 함께 한다.

과목으로는 지난 학기와 동일한 플룻, 키보드, 첼로, 수학, 일본어, 미술, 축구 교실과 새로운 과목은 뮤지컬과 제자도훈련팀이 있다.

지난 학기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재능기부한 선생님들이 모두 자리를 채웠으며 개강을 학수고대하던 대부분의 학생들도 다시 돌아와 함께 하고 있으나 새로운 학생들의 참여도 독려되고 있다.

성심성의껏 학생들의 간식을 담당해 주었던 어머니들의 손길도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재가동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수고에 맞는 음식으로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같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남편과 아내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MOTHER WISE도 계속 된다. 어긋나고 있는 듯 아슬 아슬한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수해 나갈까, 내 아이들도 옆집 아이처럼 내게 큰소리를 치면 난 어째야 하나 궁극한 마음에 MOTHER WISE를 시작했다가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보너스를 획득했던 1기 어머니들의 입소문이 좀더 많은 어머니들을 모아줄 것이다.

같은 기간, 같은 시간 한국학교도 시작했다.

한국학교

35명의 학생과 7명의 선생님이 시작한 한국학교는 학습지반, 게임반, 동화, 드라마반, 요리, 종이접기반, SAT II 한국어반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이 한국어로 진행된다.

쉬운 듯 어렵고 가까운 듯 먼 모국어인 한글을 잊지 않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미국에서 살지만 완전한 미국인이 될 수 없음에 좌절하기 전 한국인으로서의 자아확립으로 자긍심을 키워나가길 바란다.



■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를 부요케 만든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이곳으로 옮기기 전 저는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에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안주와 게으름으로 저의 영혼은 매우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최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세상에서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다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옮기게 하시고 주안예교회에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통독을 시작한다는 광고를 듣고 그동안 개인적으로 몇 번 성경을 통독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4개월의 시간을 조절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가는 중에 다시한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지 절박한 필요를 생생하게 전해 주시며 잃었던 생명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보도록 제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동과 결단은 잠시, 점심식사 후의 식곤증으로 눈은 자주 감기며 영풍한 곳에 나의 생각이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셋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약한 영을 향하여 “여호와와 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시편 19:8) 말씀으로 대적하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 내어

읽기도 하였고, 생활에 분주하여 읽는 것이 밀려 토요일에 한꺼번에 읽느라 아무 것도 못하고 성경 읽는 데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님을 스스로 위로하며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어가는데 저의 인생들을 돌아보며 마음 속에 부딪혔던 말씀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와 경험도 없는 샌드위치 샵을 운영하다 장사가 안 되어 빚만 지고 가게도 팔리지 않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울며 눈물 꺾짜기를 지나갈 때 “가련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시편 12:5)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살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늦과 황충과 팻종이가 먹은 흰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기이한 일로 너희를 대접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욥 2:25) 말씀하시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말씀을 통하여 그때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한번 감사하며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새벽시간을 드리겠노라 서원하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한두 시간씩 말씀 읽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간절함은 어디로 사라지고 육신의 괴로움을 핑계 삼아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살

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애통함이 없이 세상을 탐하고 부러워했던 저의 죄도 보게 하셨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시편 40:2) 말씀이 생각나며 어리석고 미련했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을 쏟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로 인해 저는 세상 것들 다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농부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나의 영혼은 다시 소생되기 시작하였고 성령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절제하며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 통독을 통하여 잃었던 말씀들로 저를 이끌어 가시며 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앞으로 인생의 남은 시간 주님의 손에 잡힌 도구가 되어 부지런히 땅을 고르며,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물을 주는 등의 일을 하며 온전한 열매를 맺기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무수한 보물을 얻을 수 있는 성경 통독 제겐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으며 세상에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혜실 권사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 식양식 돼지 갈비구이 >>

- 1. 재료** 돼지갈비 4 파운, 브라운 설탕 3/4 cup, 소금 1티스푼, 파프리카 가루 1테이블스푼, 마늘가루 1테이블스푼, 고추가루 1/2티스푼,



박창신 집사

- 바베큐 소스 2
2. 만드는 법 1) 오븐을 화씨 300도로 예열한다.
2) 돼지 갈비의 뼈쪽의 흰막을 벗겨놓는다.
3) 설탕과 양념을 섞어 돼지

- 갈비의 표면에 문질러 골고루 바른다.
4) 갈비를 2겹의 은박지 위에 반짝이는 쪽을 밖으로 깔고, 돼지 갈비 살쪽을 바닥 쪽으로 간다.
5) 2겹의 은박지로 갈비를 덮고 단단히 봉한다.
6) 예열한 오븐에서 2~2 1/2 시간동안 갈비 살이 뼈에서 줄어때까지 한다.
7) 갈비를 꺼내어, 1인분 2~3쪽으로 자른다.
8) Broiler 를 준비한다.
9) Broiler 판 위에 돼지갈비를 뼈쪽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가지런히 놓고 소스를 골고루 바른다.



- 10) 1~2 분간 소스가 방울방울 끓으며 익을때까지 Broil한다.
11) 돼지갈비를 뒤집은 후 11번을 반복한다.
12) 다른 방법으로는 소스를 바른 갈비를 Grill 에 구울 수도 있다.

구운 감자와 야채 또는 Garden Salad 와 함께 잘 어울리는 Menu 입니다.

■ 우리교구 자랑/ 세리토스 3교구
(교구장: 박경수, 박경숙 집사)

주안에 한가족, 정으로 뭉쳐 있어요

‘못 말리는 열정’ 세리토스 3교구의 자랑이라면 전반적으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 교구지만, 교회행사와 교구 모임에 열일 제쳐 두고, 앞장 서는 그 적극성입니다. 말씀 사모하는 열의가 젊은이들이 따라 가지 못할 정도로 뜨겁다.

지역적으로 로렌하이츠, 로즈미드, 치노힐, 포모나, 코로나 등에서부터 멀리 샌디에고까지 광범위하다. 그러나 거리와 시간은 숫자일 뿐이다. 교구예배가 어디서 열리던 높은 참석률 보인다. 부부 이름까지 비슷한 박경수, 박경숙 집사가 교구장을 맡아 교우들을 알뜰히 챙겨 유대감과 소속감이 유별나다.

지난 6월에는 특별구역인 샌디에고에 사시는 임훈, 임화연 선교사 부부가 교구가족을 초대해 주셔서 모두가 1부예배를 드리고 샌디에고로 가서서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박경숙 집사는 “샌디에고 모임을 통하여 교부로 더 느낀 것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가를 다시한번 알게 되었다”라며 “사실 선교사님 댁에서 교구모임을 갖기 전에는 서로 인사만 하시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번에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알고 난 후로 더 친숙하게 인사를 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면서 교회 뒷정리를 마치고는 맥카페에서의 만남까지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갖



는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일 년동안 주안에교회에 출석하면서 한가족처럼 사랑을 나누었던 2구역 식구인 김기형, 박지현집사(딸: 김예빈)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다함께 모여 송별예배 및 교제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집사님 부부가 귀국한 뒤에서 교구 웹사이트를 통해 소식을 서로 전하고 있다.

매달 첫 주일은 구역예배로, 그 다음달은 교구예배로 모여 기도와 공과공부를 하고, 함께 음

식을 나누며 이야기 꽃을 피운다. 주안에교회 웹사이트중 세리토스 3교구 방은 언제나 활기차고 따뜻함이 느껴진다.

세리토스 3교구 가족은 총 10가구로 1구역에는 고원상 집사, 고영옥 권사/ 송다니엘 집사, 송단아 권사/ 임신자 집사/ 박경수 구역장(교구장), 박경숙 집사이며, 2구역에는 최영식 집사, 최영애 권사/ 오춘수 구역장, 오남희 집사, 3구역에는 김용기 집사, 김영애 집사/ 박은래 장로, 박상숙 권사/ 김영갑 구역장, 김애경 집사가 있다.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주안에교구
비즈니스
소개



BDO | commercial wholesale lender
"The Bridge to Capital Markets"

Stella Son
Director

Main Office 4322 Wilshire Blvd. #301 Los Angeles, CA 90010	Downtown Office 1016 Towne Ave. #209-210 Los Angeles, CA 90021
---	---

Cell. 213.810.1230 Tel. 323.761.7505
Fax. 323.761.7507 stella.son@bdo.com
www.bdo.com Commercial Finance Lender License #603 J429



NEWSTAR Realty & Inv. 뉴스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Cindy Lee | Vice President
C | 818.621.8949
[O] 818.881.2300 [F] 818.495.2500
[E] cindylee@newstarrealty.com
cindyleetm@gmail.com
17559 Chatsworth St. Granada Hills, CA 91344
BRE#: 01303681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 • 정원 공사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s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Sang B. Kwon 권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 생명보험
- 건강보험
- 은퇴연금
- 사업체보험
- 주택보험
- 자동차보험

■ 새가족 간증/ 주안에만남 소감

갈급한 심령, 말씀이 단비처럼...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멋진 만남이었습니다. 기쁜 만남이었습니다.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매마르고 거친 사막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이겨내서 인가요? 선인장의 꽃은 아름다운 자태 속에 온 몸을 마비시키는 향기를 뿜어냅니다. 주안에교회는 그렇게 피어나 거칠고 척박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마음이 있었군요. 시기와 질투도 있었네요. 알팍한 모함과 인간적인 계산도 있었고 다툼과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겨내셨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말 못할 슬픔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에 가슴을 도려내는 절망도 있었습니다. 많이 우셨지요?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에도 눈물샘이 고였습니다. 참아도 놀러도 결국은 눈가를 적셨네요. 옆에 앉은 집사람 볼까봐 창피했는데 집사람도 눈물을 닦아내고 있던군요. 그렇지만 뚫고 나오셨네요. 이겨내셨습니다.

먼저는 우정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진실을 알아주고, 목사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주고, 목사님의 하얀 마음을 믿어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신들의 후원자는 하나님이었지요. 흔들림 없는 두터운 믿음으로 다리를 놓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셨지만 함께 아파해주시고 슬퍼해주시고 저 깊은 절망의 나락까지 찾아오셔서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셨습



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왜 주안에교회의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지예요. 어떻게 그 꽃의 향기가 몸만 아니고 마음과 영혼까지 적시는지예요.

굴이 깊은 만큼 때는 더 높아지겠지요. 말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픈 상처가 치료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고통이 위로 받았구요. 메마름을 적셔주는 단비였습니다. 그 향기는 아직도 잔재(殘在)가 남아있는 마음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충분히 덮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했고 이글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상처 받은 영혼들이 간절함으로, 말씀의 향기에 취하여 주안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짧은 소개 시간이었지만 사실 긴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 만남으로 갈증이 해소되었으니까요. 만남 자체로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셨군요. 산해진미나 진수성찬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영가(靈歌)처럼 감미롭고 각시처럼 예쁘고 꽃처럼 향기로운 식탁은 처음이었습니다. 식탁과 온 방을 화려하게 장식한 풍선에도 저희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예쁘게 접힌 냅킨 한 장에도 여러분의 진한 정성이 듬뿍 담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 아버지의 감격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셨네요. 분에 넘치는 대접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의 우리는 관노(官奴)라는 외침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송구한 낮아짐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 가시관 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친구들의 비겁한 배신과 하나님의 가슴 아픈 외면 가운데 외롭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송고한 섬김의 마음이었습니다. 주안에교회에 온지 두 달밖에 안됐지만 그 동안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신 교회 어르신들의 숭선수범하는 섬김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조성운 집사

가벼운 몇 마디 말로 어떻게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답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 없는 고개 숙임으로 눈물의 감사를 대신합니다.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FD 1134

Daniel Ahn
Counselor
Cerritos & Norwalk

12325 E. Rosecrans Ave.
Norwalk, CA 90650
daniel@HankookMortuary.com

Tel: 562.868.0788
Cell: 213.507.1313
Fax: 562.868.2808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3700Wilshire Blvd, #265 L.A.CA
Cell : 818.648.1224
E-mail : sarah27814@gmail.com



HISCO 히스코 자동차 그룹

“주안에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요하신 차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대표
권 문 상 (Joshua Kwon)
Dealer Number : 85071

- ◆ 정직하고 숨김없이 말씀드립니다
- ◆ 원하시는 곳에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 ◆ 일반자동차 부터 큰 트럭까지 전자증 취급

hiscoauto@gmail.com | Cell : 714-357-7070 | Phone : 310-539-7979

John Koo
General contractor
949 374 0311
jkoo89@hotmail.com



All Goodman Construction Co.
Sincere, Honest, Experience,
Knowledge, Trend, Sense

Addition, Remodeling, New const., Landscape Repair, Maintenance, Any type of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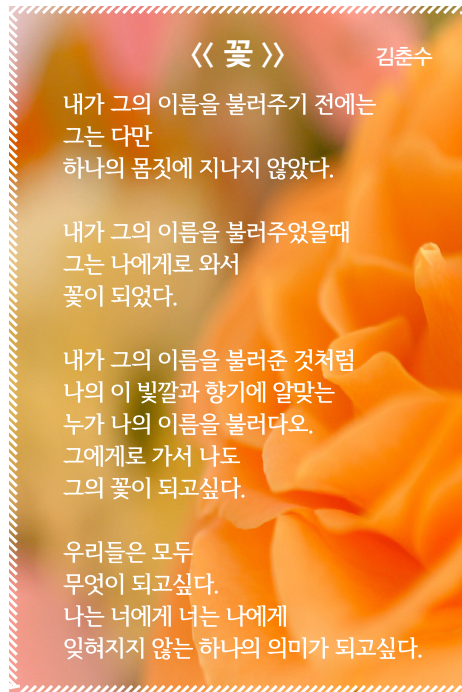
Lic # 965466
Bond, Insured, Warranty

주안에교우
비즈니스소개

■ 문학산책

수백송이 꽃이 아닌 '나의 꽃' 이 된 당신

팜 트리 사이로 멀리 HOLLYWOOD 싸인을 향긋한 차한잔의 안개사이로 들어 마신다. 모처럼의 선물같은 오후의 한가로움에 푸욱 파묻히니 가슴 속 추억의 앨범을 뒤적이며 떠 오르는 시 한편이 귀하다. 푸르른 청춘을 지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빠지고, 외우고, 간직했었을 법한 김춘수 시인의 “꽃”! 가슴 설레는 막연한 그리움, 어쩔 있을수도 혹은 없었어도 좋을 철부지 꽃사랑처럼 싱그런 빛깔과 향기가 참 곱구나. 처음 이 시가 현대문학에 발표되었던 해가 1955년이구나.. 내가 아직 아직 아기였을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애송하던 시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이유는 예쁜 시어들 사이사이로 흐르는 철학때문인듯도하다. 감성의 흐름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라는 인간사의 대전제를 이끌어 냈을 이름이다. 1연에서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것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비로소 ‘존재’의 양태를 지니게 되었다. 나의 존재를 부재의 공간에서 이끌어 내 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명명해 줄 때만 가능하다고 시인은 호소한다. 인간의 고독을 꿰뚫어보는 시인의 예리함이 느껴진다. 나는 이 시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단어인 ‘이름’을 ‘나의 나 됨’이라 해석해 본다. 그저 여러개 중 하나의 꽃이 아니라 나라는 독특한 꽃, 그래서 어떤 그 누구에게 단 하나뿐인 존재로 구별되는 그 만의 꽃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차원으로 옮겨지는 것이리라. 그저 하나의 의미없던 ‘몸짓’이 살아 움직여 ‘



《 꽃 》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싶다.

꽃’이 되더니, 그 ‘꽃’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의미’로 발전되는 과정이 인간 사이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중 하필이면 왜 당신이었나?” 라는 노래 가사가 아 니더라도, 우리 각자가 좋건 싫건 그 ‘의미’가 되어버린 다른 반쪽을 만나 살아온 과정을 경이롭게 반추해 보면, 관계가 없는 존재의 외로

움을 절절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썩뻘썩베리의 ‘어린왕자’는 어느날 셀 수도 없이 많은 꽃들이 만발한 곳을 지나게 된다. 자기가 떠난 조그만 항성에서는 단 하나뿐이던 그 꽃과 아주 똑같이 생긴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고있었다. 그 항성에서는 오직 하나뿐이었고 또 전부였던 꽃이었는데... 그래서 소중히 물도 주고 밤에는 추울까봐 덮게도 씌워주면서 보살피다가 어느듯 사랑해 버리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 꽃과의 사랑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자기가 살던 별을 떠나 지구란 별로 떠나오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만나게 된 수백송이의 예쁜 꽃들을 보면서 어린 왕자는 슬프게 말한다. “너희들은 다 아름다워. 그러나 너희들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않아. 나에게 내가 물을주고 바람개비도 씌워주던 내가 길들인 꽃이 있기 때문이야.”라고

감히 진지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당신에게 길들인 꽃 있으세요?”

이 외로운 어린왕자의 고백처럼 수 백개의 꽃들보다도 더 귀한 나만의 꽃이 가슴에서, 생활에서 숨쉬고 있을때 우리는 비로소 김춘수의 “꽃”을 이루어 낸 셸일테니까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서미숙 기자

“주간예” 2014년 10월호 원고 모집

‘주간예’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김경일, 조이 메기, 새라 리, 박창신, 서미숙, 서세건, 이지혜, 이현주, 조용대, 채은영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 오전 8:00, 10:00
밸리채플 / 오전 10:00, 11: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